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14일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정부서 억눌렸던 광주·전남 ‘대선 정책 제안’ 쏟아진다

대선 D-19

6·3 조기 대선과 관련 광주·전남 각계에서 대선 정책 제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지난 정권에서 약속 받았던 호남 지역 정책이 대부분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눌렸던 호남의 요구가 불붙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경제계·노동계·오월 단체 등 각계는 90% 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30%의 득표율을 목표하는 국민의힘 등 대선후보에게 호남에 대한 선포명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오월 단체들은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했다. 앞선 보수정권과 민주당 정부에서 모두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5·18진실규명, 왜곡·편향 등 개선, 법안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주체로서 5·18특별위원회 설치와 보존처 내에 5·18전담조직

오월단체 “오월정신 헌법 수록”·강제동원시민모임 “역사정의 세워야”

환경단체 “에너지 정책 전환을”·광주상의 “2차 공공기관 지방에 이전”

을 신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기초로 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민사회 주도형 개헌을 완성해야 하며, 개헌 논의 주체를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국민과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쪼대있고 당당한 외교,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정의를 세워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진 ‘역사 정의’ 문제를 제 자리로 돌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법부 판결 취지를 거슬러 일본 피고 기업의 배

상 책임을 피해 국가가 대신 떠 안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를 시정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는 영광한빛발전이 위치했다는 점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불량 부품 사용과 허술한 품질관리, 한빛3호기 화재 사고 등을 지적하며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의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지역 경제계에서는 내수침체 회복을 통한 민생회복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전남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제로 지역 경기가 버틸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금리 대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확대,

부가세·법인세 등 세금 납부 유예, 감염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비용 부담 절감,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사용처 지원 강화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이다. 광주상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국회광주도서관·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 건립,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와 농지법 개정 등의 호남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등의 친 기업적 정책도 내놔다.

하지만 광주·전남 노동계는 노동 중심적 정책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광

주·전남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규직 고용 원칙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헌법 개정 등의 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및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체계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제도와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주 설치, 건강검진 사업 도입, 의료수가 개선 및 전담 의료장구 운영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역 의료계도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화,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호남권역 감염병전 문병원 예산 지원, 광주의료원 설립, 조선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국가 주도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김문수·이준석, PK 찾아 지지 호소

이재명 “해수부 부산으로 이전”

김문수 “시장을 살리는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세 후보는 전날 나란히 대구·경북을 찾아 표심 쟁탈전을 벌였는데, 이날 또다시 부산·경남에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 공원을 참배를 시작으로 PK지역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는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

족하다’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벌이며 세 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부산에 이어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잇따라 방문했다. 민주당에겐 힘지로 불리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 “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나”라며 “전통적인 루트(방식)에 따라 정부선 라인을 따라 내려온 것”이라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경남 곳곳을 누비며 표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진주와 사천의 전통시장은 물론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

체 등을 방문하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진주중앙시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유세에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며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되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 부산 성관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났다. 이어 범여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뒤 자갈치시장과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 유세를 벌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이순신 벨트의 서쪽인 광양과 순천 등 전남 동부권과 목포 유세를 이어간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DI, 올해 경제 성장 0.8% 전망…첫 0%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이른바 ‘경기 침체(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전화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